

## 대한민국 우주시대 열린다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관한 가운데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전남 사진 기자단>

과기부·항우연, 고흥 나로우주센터서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 성공  
'누리호' 1·2·3단 추진기관 개발 완료...10월 1.5t 위성모사체 발사  
문 대통령 "우주발사체 기술 독자 확보 ...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10월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의 최종 성능 확인을 위해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진 종합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누리호 1·2·3단 추진기관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항우연은 이날 오후 누리호 인증모델(QM) 1단부의 최종 연소시험을 실제 발사 때와 같은 자동 발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127초간 추진체가 엔진에 정상 공급되고 연소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오후 2시 50분에 10분 간의 종합연소시험 자동운영 절차(PLO)에 돌입, 오후 3시 1단부 엔진에 점화했고 점화된 1단부는 127초간

안정적으로 연소하고 꺼졌다. 누리호 추진기관 개발 중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꼽히는 1단부 개발과 종합연소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누리호는 1·2·3단 추진기관 개발을 마치고, 10월 발사 전까지 실제 발사될 비행모델(FM) 조립과 9월 발사 리허설만 남겨두게 됐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600~800km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우주발사체로 개발 중이다.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되면 누리호는 오는 10월 1.5t 무게의 위성모사체를 싣고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지상 700km 저궤도를 향해 발사된다.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 때는 0.2t 무게의 성능 검증위성과 1.3t 무게의 위성모사체를 탑재하고

혈세 들어 멀쩡한 비품 바꾼 광주북구의회 ▶6면

복스 - '자기 치유 그림 선물' ▶14·15면

KIA 이리더 50i닝 7K 무실점 눈부신 호투 ▶18면

발사될 예정이다. 누리호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체 위성 개발 기술은 물론,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독자적으로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로 올라서게 된다.

이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세계 7번째의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본 발사만 남았다"며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며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해 탐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외환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우주발사체 개발을 결정했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 땀과 눈물을 흘려온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AI 중심도시 꿈꾸는 광주시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탈락

AI인프라 편중 경기도 최종 선정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

AI(인공지능)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 AI인프라 등이 편중돼 있는 경기도가 최종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3일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국비 195억원)의 2021년도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공고를 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다. AI기술을 지자체 보유 인프라와 연계·적용해 지역주민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로 창출 가능한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실증환경설계와 응용서비스 실증, 기업지원 등 3가지로 압축했다.

광주시는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주관으로 LG유플러스 등 11개 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실증단지는 풍암호수 공원과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정했다. 광주시는 특히 보건·복지·문화·교육·교통

등 총 4개 분야와 의료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시 11대 대표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유력 조성사업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시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AI서비스 발굴로 지속적인 실증 수요 창출, 전문기관의 지속적 지원과 협력을 통한 AI서비스 기술 완성도 제고, 지역 공공기관의 전문적 지원을 통한 AI기술 실증 사업 확대, 지역대학, 연구소 등 혁신기관과의 사업과 네트워크 확보 등 다양한 성과까지 자신했다.

시는 특히 실증기간동안 시민 50여만명의 체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한편 3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까지 발굴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부각했지만, 이미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과기부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테스트베드 사업 유치를 실패했다고 해서 AI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AI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국내외 우수 AI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도권으로만 편중되는 현실이 참혹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농어민 7만8000여 가구에 재난지원금 30만~100만원 지급

국회, 14조9391억 추경 처리

전남지역 농어민 7만8000가구에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관련기사 2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계 의원들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농가, 어가, 임가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1823억원 규모다.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3만 가구를 포함한 영세 농가, 임가, 어가 등 총 46만 가구에 30만원씩 모두 1477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등 3만2130가구에 각각 100만원씩 모두 346억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사용 기한을 정한 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전남에 배정되는 지원금 총액은 284억원으로 파악됐다. 30만원씩 받는 영세 농가 6만4000가구, 어업인 7000가구 등 총 7만8000가구가 수혜 대상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고, 이날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농수축산림업 재난 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수축산림업이 배제됐던 것은 피해액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통계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 고함! 2주간 2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주간 집중 관리!  
IOPE LAB

###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2019.08.16~10.17 일간지(광주)에 게재되었습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